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5월 3일(주일) 제1293호

온누리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한다!

5월 11, 18일 주간 순예배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 간담회 추후 '웨비나(Webinar)' 활용한 교회와 성도들의 쌍방향 의사소통도 실시

온누리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한다. 온누리교회 당회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목) “온누리미래위원회(위원장 윤영각 장로)를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을 위한 순예배 간담회 및 교회와 성도들의 쌍방향 의사소통 장(場)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누리교회가 준비 중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골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 시작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인식을 교회가 겸허하게 수렴하는 과정에서부터 출발한다. 특히 청년, 40대, 여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차세대 부모, 은퇴자 등 시대 변화의 중심에 있는 성도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려고 한다

〈관련기사 2면〉.

온누리교회가 성도들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5월 11일과 18일 주간 온누리

교회 모든 순예배에서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실시한다. 순장이 중심이 되어 온누리미래위원회가 제시해주는 토론주제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면 된다.

토론주제는 '코로나 시대에 내가 느끼는 가장 크고 본질적인 변화(나의 일터, 직장, 가정, 학교, 취업과 진로는 무엇인가?', '코로나 시대의 변화가 나의 삶과 신앙생활에 주는 시사점과 과제는 무엇인가?', '이 시기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불태우고 치유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면, 우리 안에 불태우고 회복해야 할 부분(개인차원, 교회차원)은 어떤 것인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

부터 해야 할까?',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온누리교회와 성도 개인차원에서 코로나 이후 이룩해야 할 변화와 혁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등이다. 둘째, 교회는 순예배 간담회에서 나온 성도들의 의견을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파악한 다음 교회가 고민하고 적응해야 할 과제들을 주제로 성도들과 쌍방향 의사소통 실시한다. 웹(web)에서 행해지는 실시간 혹은 녹화의 양방향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 '웨비나(Webinar)' 등을 활용해서 발제자, 토론자, 청중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성도들의 의견을 적극 수

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회 리더십과 성도들이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셋째, 교회가 고민할 시대적 과제들을 추려내고 논의한 다음 이를 세상과 교회에 실제적으로 적용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데 온누리교회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

순예배 간담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하면 된다. 먼저 공동체 담당목사가 순장교육에서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을 위한 간담회의 취지와 배경, 향후 계획과 일정 등을 설명한다. 그 다음 온누리신문에 보도된 '순예배 간담회' 관련 기사 파일(PDF)을 순원

들과 함께 읽거나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순예배 간담회 관련 카드뉴스를 시청한 다음 순예배를 진행하면 된다. 순장은 순예배 간담회 내용을 정리해서 일주일 이내에 공동체 담당목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코로나 이후 교회와 성도를 새롭게 하는 출발점은

성도들의 삶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 모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극복이라는 일차적인 과제를 앞두고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 '변화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성도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리더십은 코로나 이후 세상 속에서 온누리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

해서는 온누리교회와 성도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온누리교회의 당회(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온누리미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위원회의 첫걸음으로 온누리교회 순예배 간담회를 5월 중 두 차례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순모임에서 선정된 주제를 토론했고 이어서 정해진 날짜에 두 차례 온라인 웹세미나 형식으로 순모임에서 토론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상세한 참여 방식과 절차는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와 성도를 새롭게 하는 출발점은 성도들의 삶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세상 속에서 일하고 있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과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는 실질적인 변화의 내용과 인식을 겸허하게 수렴하는 과정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입견 없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한 이후, 다음 단계로 교회 내에서 교회가 고민할 과제들을 추려내고 논의를 시작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공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

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과정은 바로 우리를 이 방향으로 인도할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가정에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2020년 5월 3일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이재훈
온누리미래위원회 윤영각 장로 드림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준비합시다! | ‘순예배 간담회’ 첫 번째 토론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미혼, 40대, 여성에게 묻다

5월 11일 주간과 18일 주간 온누리교회 모든 순예배에서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가 실시된다. 그 첫 번째 토론주제를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미혼, 40대, 여성에게 먼저 물었다. 질문은 “코로나 발생 이후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일터, 직장, 가정, 학교, 취업과 진로 등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무엇인가?”, “코로나 이후 시대 변화가 신앙생활에 주는 시사점과 과제가 무엇인가?”, “코로나 재난 시기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고 치유하며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면 과연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등이었다. 이 질문에 김효섭 성도(44세, 브릿지33+공동체), 최규윤 순장(47세, 송파A공동체), 장지원 성도(44세, 브릿지33+공동체), 장미진 성도(48세, 여성, 부천 온누리교회), 김창식 성도(42세, 요셉공동체)가 응답했다. / 편집자 주

내가 느낀 가장 크고 본질적인 변화

김효섭 성도(44세, 브릿지33+공동체)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다. 그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매출이 줄 것 같아 걱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변화가인 명동의 가게들이 영업을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매출이 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최규윤 순장(47세, 송파A공동체)은 중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다. 최 순장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을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 변화를 몹시 안타까워했다.

“함께하고, 서로 나눠야 할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혹시 저 사람 때문에 나도 감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를 경계하게 된 현실이 너무 슬픔니다. 사람은 본래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서로를 경계하고 안전을 위해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세상의 변화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상담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장지원 성도(44세, 브릿지33+공동체)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만들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인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야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 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새로운 윤리가 생긴 것 같아 걱정됩니다. 안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화가 더욱 심화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장미진 성도(48세, 부천 온누리교회)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재정 수입이 줄어서 어렵고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몸과 마음의 기쁨을 회복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한다.

“업무가 중단되고 근무시간이 감소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여파로 재정 수입이 크게 줄었지만,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들을 돌아보고, 여러 취미를 시도해보면서 몸과 마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변화와 시사점, 그리고 과제

장지원 성도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신앙생활 태도에 변화가 찾아왔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하지 않은 일을 경험하면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관계의 소중함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이 멈추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간과했던 제 모습을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

김효섭 성도는 함께 모여 드리는 공예배와 공동체 순모임

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오해이자 교만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어떤 형태로든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헤어숍을 운영하고 있는 김창식 성도(42세, 요셉공동체)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안일했던 신앙생활을 회개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이나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풍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감사함을 모른 채 신앙생활 해온 것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규윤 순장은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지금이 크리스천으로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다음세대에 전수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자녀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 시간을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습관을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먼저 실천하고,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가족 구성원 모두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좋은 습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온누리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

김효섭 성도는 코로나 이후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은 교회와 성도의 기본을 회복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랑하는 기독교의 기본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적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사회 변화에 적절하고 건강하게 반응하면서도 성도의 본분만은 늘 간직하고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미진 성도는 코로나 사태 이후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이 소외된 이웃들의 ‘온유한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아, 과부, 이방인, 억압된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이 온유한 보호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자원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교회와 성도, 이웃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한다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윤 순장은 온누리교회가 사회적 책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더욱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소비운동’과 같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사역 한 가지씩만 실천한다면 세상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는 사명과 본질을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에 바란다

장지원 성도는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물질주의, 유물론적 사고가 만연한 혼탁한 시대에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역할은 오직 교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선한 영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국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을 자신의 유익을 얻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는 작지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노력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회개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노력을 이어나가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효섭 성도의 말이다.

“저는 인테리어 업자입니다.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 만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일들을 더러 목격합니다. 한번은 어느 교회에서 공사대금을 절반만 주면서 나머지 절반은 현금한 걸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저도 마음이 몹시 불편했는데 안 믿는 사람(공사업자)에게도 똑같이 행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회개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최규윤 순장은 요즘 한국 교회를 ‘상자 안에 손을 넣어 바나나를 잡고 있는 원숭이’에 비유하면서 한국 교회를 향한 변화를 주문했다.

“요즘 한국 교회가 기독교 세력을 옹호하고, 세상의 권력을 얻고자하는 것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마치 원숭이가 상자 안에 있는 바나나를 버리지 못해 사냥꾼에게 잡히는 모양새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평양대부흥운동이 죄의 고백과 회개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돌아보고, 교회 스스로 더욱 참회하며,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비로소 세상을 살리고, 다시 깨어나는 한국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고통 자체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주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이 없으면 좀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의 습성 때문에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두 가지 방법으로 다루십니다. 첫째, 고통을 빨리 제거 해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둘째, 고통 속에서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서 올바른 자리를 찾게 하십니다. 고통으로 엉망진창이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숨은 것을 드러내시고 올바른 자리를 찾도록 일하십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상황이 비정상이었고,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통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빼앗는 것 같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고 피하고 싶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희생되고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코로나 재난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6% 줄었다고 합니다. 멸종 위기에 있던 동물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비정상이었고,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우리 삶이 올바른 자리를 찾게 하십니다.

고통을 통해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의 기적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은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찬송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나오자마자 물이 없는 목마름에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큰 인구가 물 없이 3일 동안 방황했습니다. 3일 간의 여정 후에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곳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쓰게 하심으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쓴물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의 욕망을 채워줘서 단물로만 행복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쓴물을 마셔 봐야만 물이 달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쓴물을 통해 우리는 단물의 축복과 은혜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불평과 도전에 직면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26절).

마라의 고통을 통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치료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도 행하시지만, 우리의 환경과 상황도 치료하십니다. 더 중요한 치료는 우리 영혼과 마음의 치료입니다. 우리 인생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자리를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지를 다시 명확하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와 경로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향과 목적지를 하나님 중심적인 방향으로, 스스로 목적지를 정하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낯선 땅일 뿐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미련을 두고, 집을 짓고, 머물려고 한다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광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나가는 땅이라면 그 고통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땅을 애굽과 비교하면서 한탄과 불평으로 시간과 마음을 소비한다면 목적지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목적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지나가는 땅임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광야의 고통을 넘어서실 수 있는 인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돌아갈 인생들이요, 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이 땅은 지나가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환상을 깨뜨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최종 목적지인 것 같은 환상입니다. 이 땅에서 정을 떼고,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비정상상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익숙하게 달려가며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통해 모든 인류가 가졌던 환상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감사’와 ‘순종’을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배우게 하십니다. 고통은 베일을 벗깁니다. 우리 마음에 숨은 죄를 드러냅니다.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오랜 시간 노예생활을 하면서 신세한탄, 불평, 비난이 익숙했습니다. 그 마음에 숨겨져 있던 습관이 고통이 다가오면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 오랫동안 습관화된 마음의 질병을 걷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죄의 습관 위에 덧붙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 있는 나쁜 것을 먼저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과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마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라에서 11km를 가면 ‘엘림’이라는 축복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km는 먼 거리가 아닙니다. 엘림에는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러나 마라에 있던 시점에서 그들은 엘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불평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고통을 통해 장차 엘림의 능력과 축복을 만날 때 감사할 수 있는 영혼으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순종을 배웁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방황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시 119:67).

우리의 불순종 습관은 고통을 통해 바뀝니다. 육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받은 마지막 축복은 많은 물질과 자녀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욥 42:5).

귀로 듣는 신앙은 피상적,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요, 순종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고통을 통해 육은 진정한 순종을 배운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대개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도 그가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까? 형제 하란이 그곳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예민한 영혼을 만든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이기 때문입니다. 평탄하고 축복된 좋은 환경, 내가 원하는 성취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는 귀를 막아도 생생하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으로 영혼을 예민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놀랍게도 그 순종을 통해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의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고통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르짖을 때 나뭇가지를 주셨고, 그 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나뭇가지는 우리 고통의 한복판에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고통 속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한복판에 자신을 던지시는 분이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까지 사랑하시며 함께 고통당하시는 분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우리의 고통을 축복으로, 우리의 시련을 감사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난의 기간을 지나며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뀐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통으로만 버려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변하여 쓰임 받는 인생, 영원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전염병 재난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 삶을 올바른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지난달 25일 양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토요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당 주일예배 재개!

토요주일예배, 일요일예배, 새벽기도회 시작 5월 4일부터 주중예배도 예배당에서 재개

온누리교회가 지난 2월 25일(화)부터 국내 모든 캠퍼스의 예배 및 모임, 교회시설 이용을 중단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두 달여 만에 안전한 환경에서 예배당예배를 재개했다.

예배당 주일예배가 재개된 지난 4월 25일(토)과 26일(일)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였다. 예배당 주일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사전에 예배참석 예약시스템으로 신청 및 등록을 하고, 교회에 도착해서는 교인 확인 및 체온 측정, 좌석 지정(QR코드 스캔) 절차를 거쳐서

본당에 입장했다. 당분간은 예배당 주일예배에 참석하려면 예배참석 예약시스템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내일(5월 4일)부터는 주중예배가 예배당에서 재개된다. 목요선교집회는 5월 7일(목)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스테프 기도모임을 시작하고, 금요회복예배는 5월 8일(금)부터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에서 드린다.

주중예배 참석을 원하는 성도는 예배참석 예약시스템에서 바코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회에 입장할 때 바코드로 교인인증 및 체온측정을 하고, 마스크도 꼭 착용해야 한다.

유혜식 성도(영등포구로공동체)는 “우리집 3살짜리 막내가 교회 간 다니까 너무 좋아했다”면서 “비록 차세대 예배는 재개되지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감격스럽다”고 했고, 예배안내위원 나영옥 장로(송파공동체)는 “본당에 들어서는 성도님들이 반가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다”면서 “지난 2개월 동안 모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고 고백했다. 유완영 집사(서초B공동체)는 “어서 예배당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공감소비운동 211개 다락방 260개 사연 접수

5월 31일까지 공감소비, 6월 14일까지 사연보고서

‘부활의 50일을 전통시장과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도 살리고, 소외된 사회 취약계층을 돕는 ‘공감소비운동’을 위한 사연을 어제(5월 2일)까지 받았다. 211개 다락방에 260개 사연이 접수됐다(4월 26일 기준).

공감소비운동에 접수된 사연들이 다양하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미자립교회, 가정형편이 어려워 축구화를 구입하지 못하는 유소년 축구선수, 온라인 개학으로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그룹홈 아이들, 조손가정 및 영세상인, 청각장애인, 잠시 한국

에 체류 중인 선교사를 돕기 위한 사연들이 가득했다.

사회선교본부는 5월 8일(목)부터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각 다락방에서는 5월 31일(성령강림절)까지 지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면 된다.

사연보고서도 작성해야 한다. 6월 14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해 사회선교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3215-3434

/ 정현주 기자

“오늘은 어린이주일”

오늘(3일)은 어린이주일이다. 차세대사역본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직까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차세대들을 위하여 ‘드라이브스루 심방’을 실시하고 있다. 교역자들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차세대가정을 방문해서 어린이주일 선물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어제(2일)부터 시작된 차세대 드라이브스루 심방은 5월 3일, 9일, 10일까지 이어진다. 차세대 드라이브스루 심방 날짜와 시간은 캠퍼스 및 부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드라이브인 예배, 온라인예배 병행

양재 현주차장, 온누리교회 유튜브 및 CGNTV

온누리교회가 당분간 드라이브인 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병행한다. 드라이브인 예배는 양재동 현주차장(양재대로 12길 25)에서 주일 오전 9시, 11시 30분, 오후 1시 50분에 드린다.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 주파수에 맞춰 설교를 듣는 새롭고 안전한 형식의 예배이다.

드라이브인 예배에 참석하기 원하는 성도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바코드를 미리 발급받아 저장하고, 주차장에 들어서기 전에 확인받아야 한다.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예약할 수 있고, 예배당 차량 250대를 선착순 마감한다.

드라이브인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도 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급적 자동차 안에 머물러 성도들 간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자동차 창문을 열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예배가 끝나면 다음 예배 진행을 위해 빠르게 출차해야 한다. 라디오 주파수는 88.5MHz이다. 드라이브인 예배 실황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온라인예배도 지속된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TV로 토요주일 1~3부 예배, 일요일 1~7부 예배, 새벽기도회(1부 오전 5시 20분, 2부 오전 6시 30분)에 참여할 수 있다. 차세대, 대학청년부, 홀리스타, 외국어예배(영어예배, 일본어예배, 중국어예배, 프랑스어예배, 스페인어예배), 사랑부(장애인예배) 주일예배는 각 예배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하단 예배안내 참조).

공동체 순장모임과 순예배, 개인 영성관리를 위한 노력도 온라인으로 지속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삶(QT)’,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 이 땅을 고치소서’, ‘나라를 위한 매일 기도 마리아행전 123’에 매일 참여해야 한다.

드라이브인 예배 문의: 02-3215-3232, 02-570-7447

/ 정현주 기자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 종료

3월 30일~4월 30일까지 매일 12시간 중보기도

지난 3월 30일 시작된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가 32일 동안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달(4월) 30일 종료됐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는 매주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동안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 퇴치와 치유, 교회 회복을 위해 중보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참여했다. 공동체별로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본당에 나와 준비된 기도문을 토대로 한 시간씩 중보기도 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에 참여할 때도 온누리교회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왔다. 예배당에 입장하는 성도 수를 시간당 서빙고와 양재 10명, 캠퍼스 5명으로 제한했다. 또한 사전에 접수한 성도의 이름을 확인하고, 체온체크를 한 다

음 입장했고, 본당에 입장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간 거리를 최대한 유지했다. 중보기도를 마친 후에는 곧바로 퇴장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가 이어졌다. 온라인 릴레이 기도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각자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신청하고, 약속한 시간에 자신이 있는 곳에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유석인 성도(일산공동체)는 “본당에 앉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졌을 정도로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에 임하는 은혜가 특별했다”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축복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 정현주 기자

온라인예배 안내

1.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주일예배(1~7부)와 새벽예배(1부 오전 5:20, 2부 6:30)에 참여합니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www.youtube.com/user/Onnuriservice

-CGNTV: www.cgntv.net

2. 개인영성 관리를 위해 생명의 삶(QT)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새벽예배’,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나라를 위한 매일 기도 마리아행전 123’에 매일 참여합니다.

3. 공동체 순장모임과 순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4. 차세대 온라인 주일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9:00, 11:30, 오후 2:00

-꿈이지라는땅 오전 9:00, 11:30, 오후 2:00

-파워웨이브 오전 9:00, 11:30

-차세대 전용채널:

www.youtube.com/c/온누리교회차세대

5. 대학청년 온라인예배

- 주일예배: 토요일 오후 5:00, 주일 오전 11:30

주일 오후 2:00, 4:00, 5:30

- 홀리스타: 오전 6:30(월~금)

- 대학청년 전용채널: www.youtube.com/c/온누리교회대학청년

6. 외국어 온라인 주일예배

-영어예배 오전 11:00, 오후 4:00

-일본어예배, 중국어예배, 스페인어예배, 프랑스어예배 오후 2:00

7. 장애인 온라인 주일예배

www.youtube.com/c/온누리교회장애인사역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인도네시아 L지역은 450만 인구 중에서 99%가 무슬림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강경한 이슬람 지역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량합니다. 어쩌면 자유민주주의의 기독교보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삶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 지역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엄습해서 주민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800여 명의 유증상자와 확진자,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L지역 전체가 긴장된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M시내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 안타까움과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통행금지가 시작되었고, 대부분 관공서와 대형마트가 닫힌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고, 일일 근로자들은 생활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L섬의 작은 교회들은 일일 근로자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점심식사를 만들어서 더 어려운 이웃돕기를 시작했습니다. 사회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미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위생도구가 동이 난 상태이고, 자카르타 등의 대도시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식량준비(좌)와 열악한 상황에서도 기도와 배움을 멈추지 않는 신학생들(우).



에서 주문해야 합니다. 그마저도 일반인들이 구매하기에는 너무 비싸 구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필품 사재기 또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폭동이 예상됩니다.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도록 간박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는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한 달분의 쌀을 비축해두고, 마스크 1,000개를 구입하고, 세균박멸비누와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비타민제를 구입하는 등 120여 명의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

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신학교 수업은 원격수업과 과제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성경읽기, 암송, QT는 매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자신의 삶과 교회의 정결을 위해 새벽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땅은 죽음이 있는 곳이므로 하늘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는 주님의 지상명령 실행이 곧 삶이므로 제자지역과 파송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한 명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명의 학생들

이 타 지역으로 파송되어 교수요원으로 대학원 과정도 밟고 있습니다. 제자양육을 하고, 수마트라 L지역과 S섬에서 성경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S섬에 두 곳의 교회를 개척하고, 중부 K섬에도 교회를 개척하는 등 인도네시아 여러 섬에서 교회지원과 개척도 활발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가 이 난국을 잘 이겨나가며 인도네시아를 변화시키는 신학교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 이아브라함, 박사라 선교사(인도네시아 L지역)

어느 차세대 교사의 간증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득이하게 온라인예배를 드린 지 어느덧 두 달이 넘어간다. 지난주부터 성인들의 예배당예배가 재개 되었지만 차세대 예배당예배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아직 준비 중에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나아져 하루 빨리 아이들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내며 주일이 되어도 교회에 갈 수 없고, 아이들과 교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이 처음에는 답답하고 어색하게 느껴졌다. 주일성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괜한 죄책감도 있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만나 교제하고, 삶을 나누던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 그리웠다. 생각만 해도 안타까운 이 상황들이 속히 해결되기를 소망할 뿐이었다.

한 주, 두 주 계속해서 온라인예배가 이어졌다. 시간이 흘러가며 처음에는 어색했던 온라인예배가 점점 익숙해졌다. 하나님께서 온라인예배를 통해 새로운 은혜들을 허락하셨다.

첫 번째 은혜는 가정의 변화였다. 부끄럽지만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지만 신앙에 대한 교제와 나눔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다. 그러나 온라인예배와 온라인기도회를 통해 가족들이 한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면서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주일만 되면 각자 교회에서 섬김과



김세혁 교사는 다시 함께 모일 날을 기대하며 차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응원하고 있다.

사역으로 분주하게 보냈던 시간을 가족에게 집중하게 되었다. 가족과 함께 교제하고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됐다. 또한 서로의 삶을 나누며 신앙을 점검하다보니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은혜는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 건물에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찬양하고, 설교를 듣는 형태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

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서도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나는 온라인예배를 통해 비로소 그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는데 삶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형식으로 만들어진 주일성수 예배만을 강조하고 생각하는 율법적인 나의 예배 태도를 회개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형태의 예배이든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

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전히 어지러운 시국이지만 앞으로도 그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코로나 이후 새롭게 변화 될 가정과 직장, 학교와 교회의 모습들을 그려보며 다시 새롭게 시작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한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건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내가 되길 소망한다.

새로운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혼란을 겪고 있을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찾고 소망하기를 원한다. 새롭게 변화된 학교의 환경과 시스템 등에서 헤매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코로나 기간 동안 내가 느끼고 배운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도 동일하게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응원의 말을 전해본다.

“변해버린 사회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극복해 나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 김세혁 교사(서빙고 파워웨이크 3부)

새 은혜 주실 하나님 바라보며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코로나19 이후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 “실제 삶 속에서 올바른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크리스천들은 첫째,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인식해야 합니다(시 150:6, 골 3:23). 둘째, 일상에서 신앙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찾아내고 구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시 119:130, 답후 3:14~17). 셋째, “서로 사랑하라”(요 13:34)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구현해야 합니다(롬 13:8~10).”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재난 사태를 함께 겪어내고 있다.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모든 인류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것은 ‘코로나19 이후, 어떤 삶이 우리를 찾아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전 세계 전문가들은 분야별로 대책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와 신앙이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인 것을 전제로 하고, 크리스천으로서 실제 삶의 문제들에서 어떤 신앙적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경제 분야(이웃 사랑)’에 대한 태도

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크리스천들은 이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문제는 실제 개인과 가정 및 작은 공동체들의 생존과 생활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성도들은 심각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서 서로의 영과 마음과 생활, 환경의 상황을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세심하게 살펴보고 ‘서로 사랑의 새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이번에 교회에서 시행하는 ‘공감소비운동’을 시작으로 더욱 구체적인 대책을 찾아내 이뤄가야 한다. 특별히 오랜 기간 빈곤의 자리에 멈춰 있는 성도와 이웃들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몸 된 교회로서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의 지점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다.

둘째, ‘건강·보건 분야(예배 방식)’에 대한 태도다. 코로나19 팬데믹 재앙이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는 감염 전파 속도가 통제되고 대체적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된다고는 장기화된다고 보고 ‘생활방역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에 대해 성도들 역시 방심하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고, 생활방역지침을 지키며, 예배당예배나 드라이브인 예배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전환해야 할 것이다. 전염병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성도들 간에 의심과 불신이 생겨날 수 있고, 혹시 확진자들이 예배에 참석할지 모른다는 걱정과 염려로 예배당 예배에 참여하기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성도들 각 개인은 예배당예배에 참석을 하든지, 온라인예배로 참석하든지 지혜롭게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개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올바른 신앙훈련을 위한 분별력도 필요하다. 영상자료만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는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단 교리와 극단적 종말론과 세계적 음모론 등을 기초로 한 위험한 자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앙성숙을 위한 건강한 자료들을 분별하도록 교역자를 포함한 건강한 신앙인들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교육 분야(신앙 교육)’에 대한 태도다. 대한민국은 아직 온라인 개학을 하고 있고, 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었으며, 아직 등교 개학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관계의 새로운 경험과 국면이 나타나

고 있는 것을 영상 순예배 나눔이나 일반 보도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에 가정예배 및 신앙훈련을 할 수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들도 들리지만, 많은 시간을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 다양한 갈등이 생겨나고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온다. 이 시기 크리스천 가정은 서로의 신앙 성숙에 대해 조금이고 지나친 기대를 갖지 말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신앙훈련 시간을 지켜가기를 약속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CGNTV에서 방송하는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등을 모바일로 매일 함께 시청하고 짧은 기도문을 적어 하루에 한 명이 읽는 시간을 보내는 등의 방법을 가족 모두 동의하고 실천해보는 것이다. 이 외에도 생활의 다른 분야에 대한 크리스천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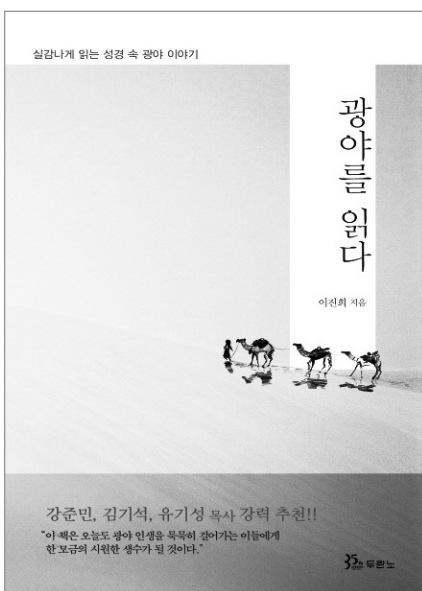


노치형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책 읽어주는 목사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



광야를 읽다
이진희 저 | 두란노 | 12,000원

〈광야를 읽다〉는 미국 댈러스에서 이민목회를 하는 이진희 목사가 쓴 책이다. 이진희 목사는 광야전문가다. 세계 곳곳의 광야를 다니면서 경험한 것들을 성경에 입각해서 풀어냈다. 이 책에서는 나침반, 오아시스, 그늘, 낙타

등 14개 키워드로 광야를 설명하고 있다. 광야를 독특한 관점으로 통찰력 있게 풀어내고 있다. 저자는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누구나 정상에 오르기를 원하지만 인생은 경험하면 할수록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하나의 광야를 지나면 또 다른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혹독한 광야를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가 여태까지 두려웠던 평범한 일상들이 갑자기 멈춰 버리고 말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어가고 있다. 세상이 전쟁상태가 되고 말았다.

나는 목회자로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기쁨이요, 사명이라고 여기며 살았다. 그런데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었던 일상이 일순간 멈춰 버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척 당혹스러웠다. 지금 상태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 끝날지 막막하기만 하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광야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함을 느끼는 것과 같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은 언젠가 끝나겠지만 하루 하루 계속되는 인내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 무척 고통스럽다.

광야를 잠시라도 경험해보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인지 알 수 있다. 나는 작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통해 예수님이 시험받으셨던 유대광야를 기본 적이 있다. 눈앞에 보이는 유대광야의 모습은 흙과 바위뿐이었다.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었다. 거기다 그늘이 전혀 없는 곳이라서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빛에 한 시간만 있어도 어지럽고 쓰러질 것만 같았다.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다. 광야는 양식과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광야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경험하게 한다.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광야는 저주

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다. 지금 우리의 일상은 광야의 삶과 같다. 하지만 그동안 바쁘고 분주했던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일대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광야다.

이 책 3장에 ‘나침반’ 이야기가 나온다. 광야는 사방을 보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를 얼마나 가야 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하지만 나침반은 방향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나침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방향을 알게 되면 광야도 두렵지 않다.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은 예수님이 영적 나침반이다. 광야는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다. 나침반 같은 주님을 따라 가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 아무리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질 리라 기대한다.



송석근 목사
(광명공동체)

조선 교회사(史)가 곧 한국의 근대화다

기독교, 조선 사회 계몽운동을 이끌다!

서양 선교사들이 금주와 금연 운동을 하게 된 이유

조선 교회사(史)가 곧 한국의 근대화다.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한국의 근대화는 불가능했거나 아주 많이 늦춰졌을지도 모른다.

한국 근대화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한국 근대화의 씨앗이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조선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은 의료와 교육, 여성운동과 계몽운동, 상업장려운동과 독립운동 등을 이끌면서 우리 민족의 기적 같은 역사를 써 내려갔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그 아름답고 빛나는 조선의 선교 역사를 분명히 직시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번 순서에는 기독교가 조선 사회의 계몽운동을 이끌었던 이야기를 소개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왜 조선에 들어온 기독교는 술과 담배를 금지했을까? 기호품이라고 할 수 있는 술과 담배를 근절하지는 운동을 조선 사회 계몽운동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나 지금이나 술과 담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로 인한 사회적 낭비도 상당하다. 그런데 조선 사회는 그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술과 담배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폐해가 엄청났다. 오죽했으면 “이 민족은 술 때문에 망할 민족”이라는 기록도 있다.

조선 사회에서는 젓만 떼면 담배를 피웠다

조선에 담배가 전해진 것은 임진왜란 이후다. 1616년 담배가 들어왔는데 삼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담배를 피웠다.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는 “젓먹이들 까지도 즐겨 피우지 않는 이가 없을뿐더러”라는 기록이 남아있고, 하멜의 <하멜표류기>에도 “조선 사람들은 담배를 좋아하며 아이들도 4~5세만 되면 담배를 피우며 남녀노소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말 그대로 조선은 애연의 민족이었다.

17세기 조선에는 비싼 담배 값과 손쉬운 농사법으로 인해 곡식 대신 담배농사를 짓는 면적이 크게 넓어졌다. 담배 600g이면 쌀 80kg과 맞먹는 가격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임금까지 나섰는데 영조는 1732년 3남(영남, 호남, 충청) 지방 관리들에게 “양전(良田)에다 담배 심는 것을 금하라”는 명을 내리기도 했다.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으로 보기에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승정원 일기>에는 “8인 가족이 하루에 소비하는 담배 비용만도 쌀 36kg 값을 내려가지 않는다. 파산하여 몰락하는 집안이라도 기다렸다가 반드시 늦게라도 얻는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외에도 담배는 위생, 청결, 화재 등의 문제도 자아냈다고 한다. 조선의 애연인구는 계속 증가했는데 19~20세기에는 초기 기독교인들도 담배를 피웠다. 예배당 신발장 옆에 담배대를 두었다가 예배가 끝나면 함께 담배를 피웠다고 한다. 그러나 담배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폐해가 심각해지자 조선 교회와 선교사들이 금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은 술 때문에 망할 민족”

조선시대 초기 술은 사치품에 가까웠지만 정조 때에 이르러 대중화 되었다. 조선 후기 문신 채제공의 일성록(1792년 9월 5일)에는 대중적인 술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비록 수십 년 전의 일을 말하더라도, 매주가(賣酒家)의 술안주는 김치와 자반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백성의 습속이 점차 교묘해지면서, 신기한 술 이름을 내기에 힘써 쇠고기나 생선을 따질 것도 없이 태반이 술안주로 들어갑니다. 진수성찬과 맛있는 탕(妙湯)이 어지러이 널려 있으니, 시정의 연소한 사람들이 그리 술을 좋아하지 않아도 오로지 안주를 탐하느라 삼삼오오 어울려 술을 사서 마십니다. 이 때문에 빚을 지고 신세를 망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술값으로 가산까지 탕진할 정도였으니 조선의 음주문화가 건전했을 리 만무하다. 큰 사발에 술을 부어 나눠 마시는 ‘사발식’도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일종의 폭음문화다. 정조가 다산 정약응에게 옥필통에 가득 삼중소주를 부어줬을 때 다산은 “나는 오늘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다. 정약응은 “춘당대(春塘臺)에서 임금님을 모시고 고관(考券)할 때에 맛있는 술을 큰 사발로 한 그릇 하사받았는데, 그때 여러 학사들은 크게 취하여 인사불성이 되었다”는 기록을 남겼다.

조선에 온 서양 선교사들은 조선의 이러한 폭음문화를 따갑게 지적했다.

“영의정이나 임금도 공공연히 폭음을 한다. 이것은 큰 타락이다. 그러나 이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조선의 아침은 술꾼들이 토해놓은 토사물들로 냄새가 진동하고, 거리 곳곳에 주정뱅이들이 드러누워 있으며, 그 상태로 죽은 사람도 종종 있다.”

“이 민족은 술 때문에 망할 민족.”

금주와 금연으로 마련된 돈으로 국채보상운동까지



1. 조선기독교절제회의 금주운동 전단지.



2. 1900년대 초 거리에 세워진 전국 금주운동 간판.



서양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들의 음주와 흡연문화를 당연히 좋게 보지 않았다. 금주와 금연을 실시하지 않고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게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다. 1894년부터 조선 교회와 서양 선교사들은 본격적으로 금주와 금연을 장려했다. 1894년 감리교 선교사들이 모여 “음주는 ‘하나님께 범죄 하는 일’, ‘교회법을 어기는 일’, ‘가족들에게 광언지설 하는 일’, ‘자기 몸을 망하게 하는 일’”이라고 공지했다. 1895년 마포삼열 선교사가 장로교에서 학습교인을 위해 펴낸 책자에는 7가지 세례 조건이 있다. 그중에서 7번째가 ‘술 취하지 말고, 노름하지 말고, 아편연(담배나 아편)을 먹거나 팔지 말라’다. 사실 이때는 술 한두 잔 정도는 허용을 했는데 술 한두 잔만 먹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이어서 북감리교회가 1897년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한국선교 연례회의에서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윤리적 표준으로 완전한 금주론을 결정했다. 문제는 술과 담배를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웠던 모양이다. 1903년 <신학월보>에는 목회자와 성도가 주고받은 금주문답이 실렸

는데 질문 내용이 참 재미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물 먹지 말고 술을 조금씩 먹으라 하였으니, 나도 조금씩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건데 술을 아니 먹으면 죽을 듯 합니다.”

금주와 금연운동이 교회 밖으로 뻗어 나간 것은 1900년대부터다. 금주와 금연으로 마련한 돈으로 국채를 보상하지는 의지도 있었다. 서양 선교사들은 1911년 ‘기독교 절제회’를 조직해서 금주와 금연운동에 앞장섰다. 1912년부터는 평양을 중심으로 금연을 해서 외지에 전도하지는 ‘계연회’도 활동했다. 1923년부터는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도 활동을 시작했다. 이외에도 장로교의 청년연합회인 면려회, 기독교청년면려회 조선연합회,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 등 수많은 단체가 구성되어 절제운동에 앞장섰다. 그리하여 조선 사회에 금주와 금연을 권장하는 새로운 문화가 조성되었다. 따라서 조선 교회와 서양 선교사들의 금연, 금주운동은 조선 사회를 위한 계몽운동이 틀림없다.

